

전남 핵심사업 예산 전액 삭감

F1 진입로·J프로젝트 간척지 매입비 '0'원...차질 우려

광양컨 건설비도 대폭 줄어...SOC 반영도 낮아

사업명	요구액	반영액	부처
F1경주장 진입로 개설	241	0	문화관광부
J프로젝트 간척지 매입비	390	0	"
한옥 민박마을 조성	200	10	"
광양컨 두드 건설	3,800	2,254	해양수산부

전남도가 정부 부처에 요구한 내년 도 국고예산 가운데 지역 핵심사업이 누락되거나 예산 반영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15일 16개 중앙 부처에 요구한 내년 지역 현안사업 국고예산 가운데 4조 3천732억원이 우선 반영돼 기획예산처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처 반영액 4조 2천253억원보다 1천4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전남도가 요구했던 국고지원 총액 5조 8천412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사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 관련 사업 예산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중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반영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요구한 F1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41억원은 '국제대회 미승인'을 이유로, J프로젝트 간척지 매입비 390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양도·양수를 협의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전액 누락됐다.

이로 인해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프로젝트가 예산 미확보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또 해양수산부에 3천800억원을 요구한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비는 2천254억원만 반영돼 최근 부산·인천항에 밀려 투포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와함께 도는 문광부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200억원을 요구

했지만 단 10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요구액이 재반영 되도록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관련 예산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부처 반영 현황을 파악해 국고지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인건에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엔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은 목포~광양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천979억원, 무안 국제공항 마무리 사업비 169억원 등이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726억원과 순천~여수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비 900억원 등 6개 사업에 2천598억원, 국도 확·포장을 위한 27개 지구 사업비로 총 4천239억원이 반영됐다.

또 국도 대체 우회도로 30개 지구 건설 사업비가 3천523억원, 소록~거금도 연륙교 4차로 확장비 600억원 등 연륙·연도교 5개 건설사업에 1천170억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로 여수~순천 국도 17호선 개설(553억원) 등 11개 사업에 5천701억원 등이 책정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신나는 물놀이 초복이자 휴일인 15일 광주·전남 유명 해수욕장과 유원지는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다. 이날 오후 보성 울포의 해수욕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직경기자 jrwi@

기아차 파업 출구가 없다

노조, 교섭 중단·파업 확대...매출손실 3,900억 예상

17년 연속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 자동차 노조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을 비롯해 광명·소하리 등 3개 공장은 물론, 협력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3일 6차 협상 결과 노사간 의견차가 크다고 판단, 이번 주부터 파업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전격적으로 교섭 불참을 선언해 향후 노사간 임금협상 창구조차 봉쇄됐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온 본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지난 13일 쟁의대책위원회

(쟁대위)를 열고 16일부터 파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5시간동안 열린 쟁대위 회의를 통해 16일 주야 12시간, 18일 주야 8시간, 19일 주야 10시간, 20일 주야 8시간씩 부분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노조는 주야 6~8시간씩 파업을 벌였으며 본교섭이 있는 날은 파업을 중단했었다. 또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7차 본교섭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05원(8.9%) 인상과 성과급 삭감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통상임금의 200%)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12월 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6천원(2.5%) 인상안을 제시하자 크게 반발했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손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까지 광주공장의 경우 차량생산차질대수 4천900여대, 매출손실 76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번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7천800여대, 1천2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30개에 달하는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 손실도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전체 생산차질대수와 매출손실은 손실은 지난주까지 1만3천380여대, 1천950억원이었으나 이번주까지는 2만6천680여대, 3천9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tle@

北,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5년만에...韓·美 "2·13이행의지 확인 환영"

북한은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의 영변 핵시

설 폐쇄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일제히 "북한의 2·13합의 이행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영변 핵시설은 지난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지 거의 5년만에 다시 운전을 멈췄다.

(관련기사 6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교부 대변인 말을 인용해 "우리는 중유 5

만톤의 첫 선적분이 도착한 뒤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며 "2·13합의 완전한 이행은 미국과 일본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손 매코믹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 같은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팀에 의해 검증과 감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6자회담 대표단이 18일 베이징에서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다짐한

2·13합의의 다음 단계 이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통보는 2·1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공급 1차분 6천200t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 선봉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만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들이 15일 오전부터 북한이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15일 도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뒤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전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초기단계 이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조기 이행방안 등 6자 수석대표 회담 전략을 협의한다. /위성민·연합뉴스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광주시 "민주노총 지원금 반환하라"

전세금 3억 환수키로

광주시가 폭력시위를 이유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제공한 3억원의 광주시 지

원금을 7월말까지 반환해줄 것을 민주노총에 요구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말 불법 시위단체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자부

의 지침과 각종 시위에 민노총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광주의 강성이미지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전남 본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시·도 지원금 4억3천만원, 자비 7천만원 등 5억원으로 복구 유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채희중기자 chae@

국립중앙의료원 "7만 4천 명의 사별한 자"를 위한
재미: '소비가 많은 좋은 광고'를 추구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쪽아이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갖는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피부미용, 인체수용기 병용 성분
- 면역 강화,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관련, 이명증
- 안과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
(기미, 주근깨) 완화, 인공눈물
비율형 비만
- 말초혈행장애 및 경년기시 다중
중심성 비만, 이명, 목덜미,
수족냉증, 수족발등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yocofarm.co.kr
고객콜센터(주말·휴일 부가) 080-022-2200